다산포럼

정지창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곳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만 달러를 달성해 이른바 선진국의 범주인 '20~50클럽'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25.3%를 차지하여 4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통계를 보니 선진국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 5천만 명 가운데 4백만 명이 혼자 사는 외톨이라니….

외톨이가 가장 많은 곳은 대도시의 도심지역이다. 부산 중구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39.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은 35.8%가 1인 가구인데, 그중에서도 관악구 신림동은 74.4%가 1인 가구다. 대학생과 고시 준비생을 위한 원룸촌이 많은 데다 전철 2호선으로 출퇴근하는 미혼의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어느새 외톨이들의 집단 서식지가 되었다.

대도시 도심 다음으로 외톨이가 많은 곳은 농어촌 지역이다. 전남, 경북, 강원도 순으로 28~29%가 1인 가구다. 농어촌 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고 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태반이다.

또 농어촌 노인들 가운데는 치매나 우울증 환자도 많다. 그러니 농촌 노인들의 자살률도 점점 높아진다. 경기도의 경우, 자살한 노인이 2000년에는 301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02명으로 늘었다. 혼자 죽는 고독사 역시 2000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15.5%였으나 2010년에는 23.5%로 늘어났다. 한 해 약 1000명이 혼자 죽음을 맞는다.

외국의 주거 통계를 찾아보니 예상대로 선진국일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가 38.5%로 가장 높고, 독일이 37.5%, 벨기에가 33%, 프랑스가 32.6%, 영국이 29%, 일본이 27.5%. 미국이 27.1%, 캐나다가 26.8%다.

그렇다면 선진국이 과연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 소리를 들어도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가 그와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도 독일은 복지와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워할만한 선진국이었으나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독일의 노인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부자들만 행복한 나라처럼 보였다.

선진국일수록 이혼과 독신 남녀의 증가로 가족의 해체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고독사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일본의 경우, 한 해 3만 2000명 가량이 연고자 없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사(無緣死)로 기록된다.

이른바 '무연사회(無緣社會)'가 선진국 일본의 미래상이라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 10만 명의 독거노인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방치돼 있다니 무연사회가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런 통계수치를 훑어보다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집, 마을, 텃밭, 공터 같은 친숙한 말 대신에 단독주택, 단지, 공한지, 나대지 같은 삭막한 관청용어들을 자주 입에 올리고, 건설회사 이름과 괴상한 외래어가 뒤섞인 00타운, 00빌, 00하이츠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 갇혀 살면서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과 집, 가족으로부터 이탈하여 외톨이가 된 것은 아닐까? 이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

고향 산천에 대한 애틋한 향수라는 구심력보다 출세와 돈벌이라는 원심력이 강할 때 이미 무연사회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 아닐까? 가난하고 좁아터진 고향 마을이 감옥처럼 갑갑하게 여겨지고, 가족이 족쇄처럼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고 느끼는 야심찬 젊은이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지겨운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미지의 도시로 향한다.

친숙하고 안온한 고향 마을과 집과 가족보다 익명성과 자유와 모험이 보장되는 낯선 도시의 아파트와 원룸을 동경하면서 우리는 이미 외톨이가 될 운명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가 도달한 곳은 돈만 있으면 마음껏 소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혼자 살고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일상화된 선진국이라는 유토피아이다. 유토피아란 서양말은 이 세상에는 없는 곳, 즉 신기루를 가리킨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남~제주 해저터널 실현 정치권 힘 모아야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 핵심사업인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공약으로 급부상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국고지원을 요청하면서 호남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역점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이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기본계획 수립비 100억 원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산서에 이 예산이 포함되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다행히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여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호남·제주의 최대 현안인 이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현 정부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저터널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해 놓고도 결과 발표를 미루는 등 소극적이다. 내부자료를 이유로 연말까지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대선공약과 맞물려 있어 섣부른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전남은 '남해안 관광시대'를 주도하게 될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26분, 광주~제주는 1시간, 목포~제주는 40분에 닿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서울역~무안공항~제주공항 등이 KTX로 연결되는 선진 교통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해저터널 사업이야말로 전남의 빼어난 섬 자원과 제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전남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절호의 기회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호기를 맞아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후된 광주문예회관, 부끄러운 문화도시

지난 1990년 문을 연 광주문예회관은 지역에서 유일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다. 흔히 지역 문예회관들은 20년이 넘으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하지만 문예회관 측은 마스터 플랜을 통한 리모델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매년 한달 정도의 보수 기간을 갖고 급한 곳을 막고 있는 형편이다.

문예회관이 노후화되다 보니 관람 분위기를 해치기 일쑤다. 실제로 지난달 말 수원시향 공연 과정에서 피날레곡인 베토벤의 '운명'의 연주가 시작되자 냉방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관객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무대 위 지휘자와 현악주자들은 수준 이하의 분위기에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되었을지 생각만해도 부끄러울 따름이다.

관객들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지난달 6일 전국연극제 초청작으로 문예회관 무대에 올랐던 '낙타풀' 공연 때도 겪었었다. 공연이 시작됐지만 시끄럽게 돌아가는 냉방기 때문에 배우들의 대사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연극 중반에 냉방장치를 끄고서야 제대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개관 이후 단 한차례도 교체되지 않은 낡은 의자 역시 보풀이 일거나 얼룩져 있고, 삐걱거림으로 인해 공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대표적 문화공간이 이 정도이니 광주를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문예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기에는 잇따른 공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노후된 시설에서 인내하며 관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비수기 휴관기관을 더 늘려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별도의 문예회관 건립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과 함께 새로운 공연장 시설은 문화수도로서 제격인 것이다.

기고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갖는 의의

최연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 시내 아이젠하워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단다. 이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도서관 앞에 세워진 기림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0일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공동으로 참여해 매우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감회를 밝히며 6월 한 달분 급여를 건립비에 사용토록 성금을 기탁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미국의 자치단체장이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의 만행을 공식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문제는 국내에서도 피해 당사자와 일부 운동가들의 외로운 싸움에 그친 게 사실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다.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외로운 싸움이 아닌 양심의 주먹이 되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중국혁명의 대가 아그네스스메들리는 이런 표현을 썼다.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 거대한 벽도 한 알의 물방울이 모여 무너지지 않는가. 이번 기림비가 작은 씨앗이 돼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한 알의 불씨를 일으킨다면 일본의 오만함과 편협한 역사관에 일침을 가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광야를 불사르는 커다란 불꽃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소식도 들려온다. 일본은 지난 5월부터 뉴저지주에 세워진 기림비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쓴 각목을 묶은 일본 극우파의 '테러'를 보며 전 국민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 남성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년 만에 반일의 상징이 두 개나 생겼다. 지난해 일본대사관 앞에 이 동상이 들어섰고 올해 5월에는 매춘부박물관도 들어섰다. 미국에서도 매춘부기념비가 뉴저지와 뉴욕 두 곳에 생겼다'고. 매춘부라니, 그들의 역사관에 두려움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독일의 그것과 비교된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나치에 의해 40여 만 명이 희생된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지구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서 비를 맞아가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또한 우리와 달리 전후 나치 전범자를 모두 엄벌하고 그들이 저지른 온갖 만행을 교과서에 고스란히 실어 아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친다.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금을 지급한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시대의 고전인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하는 이유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알려줘야 할 이유다. 또한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젠하워공원에 세워진 기림비에는 다음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정부 군대에 유린당한 20여 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리고 위안부로 알려진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으며, 우리는 인류에 대한 이 잔혹한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씨앗이 한 알의 불씨가 되어 광야를 불사른다면 여리고 아픈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고

엑스포 성공 개최 지역민·기업체 앞장서야

김홍주

지금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적 관광 이벤트인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오랜 준비 끝에 지난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22조원, 고용유발효과 7만90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차세대 해양관광 레저산업의 발전, 해양자원 개발, 해양오염제거 기술. 기후변화 예측 적응기술 등 미래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해양기술 개발의 장이 될 이 여수엑스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장이며,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이 동북아의 새로운 종합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지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 관광업체 및 업계 종사자들도 모처럼 인근인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관광이벤트를 맞아 이 지역 관광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기대로 충만했고, 아무쪼록 국내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여수로 몰려 올 것으로 고대했다.

엑스포 준비기간인 지난해 가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 견학에 나섰으며 성공 개최를 위해 여러 제안을 했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관계 기관과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엑스포 행사의 반환점을 돈 지금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이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며, 우려하는 마음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역 관광 업계 종사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관광협회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여수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광주가 아시아문화수도이자 세계민주인권의 메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또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광주와 여수 엑스포 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 여수엑스포 개막일부터 현재까지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광주관광투어버스 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이 최근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역에서 열리는 거국적인 행사임을 감안, 지역민 모두가 합심해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에 지역의 이미지를 선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지역 기업체들이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한 지역 대표 기업이 오직 자사의 영업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광주시에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여수 엑스포 투어버스를 불법 운행이라며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처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수엑스포 관람객이 예상보다 저조해 지역의 모든 관계기관, 기업체에서 관람객 확보 등 성공적으로 엑스포의 결실을 맺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 대기업이라면 지역 관광발전, 더 나아가서는 경제발전 및 지역의 통합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인 견지에서 노력해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여수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아집을 버리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소통 및 통합 발전의 대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 관광협회장〉

공황장애 환자에 관심갖고 범국민적 캠페인 벌이자

공황장애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공황장애라는 질병도 상당히 위험하고 개인에게는 적잖이 심각한 일이다.

이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극심한 공포증세를 보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공황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대부분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같은 초기 증세로 심장 쪽이나 호흡기 쪽의 내과를 찾는데 이게 뒤늦게 공황장애 진단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공황장애는 대부분 광장공포 증을 갖는다고 한다. 이건 엘리베이터, 비행기, 광장 등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두려워하는 증상이다.

공황장애에 걸리면 심장박동 증가,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럼증, 손발 저림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된다.

또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술을 끊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등의 미묘한 회피 행동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 스스로 이런 걸 막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담배와 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같은 걸 줄이고 요가나 명상요법 같은 식으로 이완요법을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중추신경흥분제를 포함한 다이어트 약물도 피해야 한다.

아울러 범국가적으로도 현재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걸 막을 수 있는 각종 캠페인과 홍보를 하는 것처럼 공황장애 같은 질병에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홍보와 알림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지호·목포시 축복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별들이~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1950년대 우리나라 최고 히트곡인 금사향의 '홍콩 아가씨'는 이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당시엔 중국 음식점 간판도 북경반점보다는 홍콩반점이 더 많았었다. 중국식 표현으로 홍콩은 '향기가 피어오르는 항구'(香港·샹깡)일 정도로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

홍콩

그러나 홍콩의 역사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 애초 홍콩은 몇 안 되는 어민들이 살고 있던 해적소굴이었다. 19세기 초 영국은 불법적인 아편무역을 통해 홍콩을 장악했다. 이에 1839년 중국 정부는 광저우(廣州)에서 아편추방운동을 시작해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몰수했다.

이 사건으로 홍콩 섬 근해에서 시작된 중국과 영국의 전투는 제1차 아편전쟁(1839~42)으로 확대됐다. 전쟁이 끝난 뒤 맺어진 난징(南京) 조약에 따라 홍콩은 영국에 할양되었다. 이어 영국은 1898년 홍콩을 비롯한 인근 도서에 대한 99년간의 조차권을 얻었다.

홍콩의 세계사 등장은 불행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영국의 자본주의 통치 아래 세계무역 중심지로 번성하며 동방의 진주가 됐다. 1982년 영국과 중국이 조차기간 만료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후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됐다.

동시에 중국은 중앙정부 직속으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했다. 영토는 중국에 속하지만 기존의 통치방식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독특한 체제가 만들어졌다.

지난 1일 홍콩의 주권 반환 15주년 행사장 주변은 시위와 항의로 얼룩졌다. 100년에 이르는 동안 서방 민주주의에 익숙해 있던 홍콩 주민들이 대륙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일국양제를 이뤘지만 홍콩과 대륙 사람들의 가슴에 자리 잡은 '일국양심'(一國兩心)이 쉬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